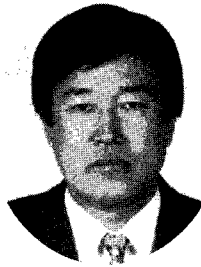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분위기

●●●●●●●●●● 조성에 역점을



윤형수
김포채란분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계 발전을 위해서 중책을 맡게 되신 양계협회 회장님께 두서없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양계인들은 축산물수입 개방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축산폐수문제와 인건비 상승 및 인력확보문제 등 양축농가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이 시점 사육기반마저 너무 취약할 뿐 만 아니라 규모도 영세하여 국제 경쟁력에는 상당히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양계인들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 하나만 이라는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신념속에 양계

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계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분위기에서 양계인들의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부화장과 농장의 철저한 방역관리 그리고 시설의 성력화를 함으로써 인건비의 절약과 아울러 생산성향상 및 상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가서는 유통구조의 개선 등 이와같은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장님의 양계협회에 대한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회장님 양계 발전을 위해서 임기동안 매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회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공존공생할 수 있는

●●●●●●●●●● 길을 마련해 주었으면...



엄재국
이천육계분회장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있다”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 이말이 생각나는 것은 어쩐일일까?

과거 어느때고 양계업계가 순탄하고 쉬웠던 경우는 별로 없었겠지만 지금 커다란 외세의 바람앞에 우리 생존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 적도 없었을 것이다.

사실 양계업계 대다수의 문제가 생산자 자신의 문제이고 스스로의 자기징계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해결의 열쇠가 달려 있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신임회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며 몇가지 우리의 기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개인적으로 볼때 현재는 어려운점도 물론 많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들면 근년에 들어와서 협회를 중심으로한 많은 고무적인 활동들이 있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무언가 변화를 모색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같이 보조를 맞추려는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작년에 치루었던 양계박람회나 최근에 시작된 닭고기의 T·V홍보,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월간 양계」의 시기적절한 최근의 내용들, 그

리고 정부차원에서 행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마련과 양축가를 위한 상당한 액수의 지원대책 등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업계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제는 무언가 변화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 조금만 잘 유도한다면 같이 움직이기 쉬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등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임회장에 대한 기대는 우리업계 모두를 잘 포용하여 함께 화합하고 단합하여 집안싸움이 아니라, 외세에 맞서 나갈수 있는 힘을 모으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시대적 흐름의 물길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그렇게 되는것이 말처럼 쉬운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노력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기위해 신임회장 혼자 의 노력이 아니라 양계업계 모두가 주인이란 생각으로 참여하게 하며 더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당연히 신임회장을 위시한 협회의 모든 임직원들이며 직원들 모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양계업계라는 무거운 객차를 끌고갈 수 있는 힘있는 기관차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양계업에 전념하는 목적있는 사람들을 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며 앞으로 흐름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또한 현재는 대정부건의와 가능성 있는 대안 제시가 어느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런쪽의 활발한 노력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때 모든 양계인들도 합심, 호응하여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 살을 깎는 노력으로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며, 필요하다면 개인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해서 살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대가 한낱 백일몽이 아니라 참신한 현실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양계협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양계**